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달라이라마 법회 인도·부탄성지순례 8월 21일
대만공승재 8월 22일 출발 02)720-9600

불교신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시다
ARS 060-700-0048
불교신문 법보시 후원(한통당 5,000원)

불기 2560년 6월 8일 (2016년 / 단기 4349년 음력 5월4일)
ibulgyo.com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대표전화 (02)730-4488 제3207호 수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4·16가족분향소'를 방문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 위로에 앞서 헌화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3일 서울 국립 현충원을 찾아 군복무 중 순직한 군승 묘역을 참배하는 군종교구장 정우스님을 비롯한 수도권 군승들.

지난 3일 서울 구의역을 찾아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사고로 숨진 청년을 위해 추모기도를 올리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 ▶관련기사 4면
신재호 기자

"아픔 끝까지 함께할 것…"

총무원장 자승스님 세월호 유가족 위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4·16가족분향소'를 방문했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분향소에서 헌화를 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전시관에서 유가족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에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전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인양이 연기되고 있다"면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종교계에서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을 약속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세월호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모적 논쟁으로 대책이 미흡했던 것 같다"면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대책마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6월 중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초청해 함께 공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지원' 기금으로 총 2억4889만9471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기금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캠페인을 벌여 꾸준히 모은 것이다. 2년여 동안 총 3억8472만4271원이 모였으며,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4·16가족협의회와 희생자 가족 생계비 지원 등에 1억3582만4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총무원장 스님은 또 '세월호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노란리본을 만들어 전국에 보내고 있는 노란리본공작소에 들러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리본을 만드는 의미를 다 알 것"이라며 "다시는 아픈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뜻"이라고 당부했다. 한 학생은 총무원장 스님에게 노란리본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날 광화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에는 사회부장 정문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스님, 사회국장 지상스님 등이 함께 했다. 유가족 쪽에서는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종기 사무처장, 홍영미 심리생계분과장, 김미나 심리생계팀장, 김명임 7반 부대표, 고(故)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 등이 총무원장 스님을 만났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2014년 4월27일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아 세월호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으며, 지난해 4월23일 광화문 광장 분향소를 찾아 참배하고 분향소에서 헌화한 뒤 고(故)오영석 학생의 아버지 오병환씨 등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힘을 내라고 위로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모연
• ARS모연 : 060-700-1027
• 문자모연 : #2540-1027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 창에 사찰명 또는 개인이름 입력)
• 모연계좌 : 농협 301-0160-9713-71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 모연문의 : 02-730-6690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흥전리사지서 통일신라 청동정병 출토

1000년 전…완전한 형태
"문화재 지정 가치 높아"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1000여 년 전 통일신라 청동정병 2점이 완벽한 형태로 출토됐다. 이번에 나온 2점의 청동정병〈사진〉은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 통일신라만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으로, 국가문화재 지정에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부터 '중요 폐사지 시발굴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일감스님)는 지난 2일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현장설명회를 열고 건물지와 출토유물을 공개했다. 지난 4월부터 동원 건물지를 중심으로 3차 시발굴조사를 착수해 청동정병 2점과 금동장식판, 쇠로 된 작은 솥과 창에 꽂는 칼, 귀면와, 막새 등 기와, 도자기편이 출토됐다.

이번에 출토된 유물 중 주목되는 것은 2점의 청동정병으로, 동원 1호 건물지 내 2호 구들 안쪽에서 확인됐다. 함께 발견된 큰항아리의 문양이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대중(大中)12년(858년)이 새겨진 큰 항아리 문양과 동일해, 항아리는 물론 정병 역시 늦어도 858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정된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일감스님은 "흥전리사지에서 출토된 청동정병은 가장 완전한 형태로,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과 유물과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며 "청동정병 2점을 비롯해 출토유물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에서 보존처리되며 미술사적 연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흥전리사지를 포함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적에 대해서는 사적, 기념물 등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7면
삼척=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일광스님의
사랑하기 좋은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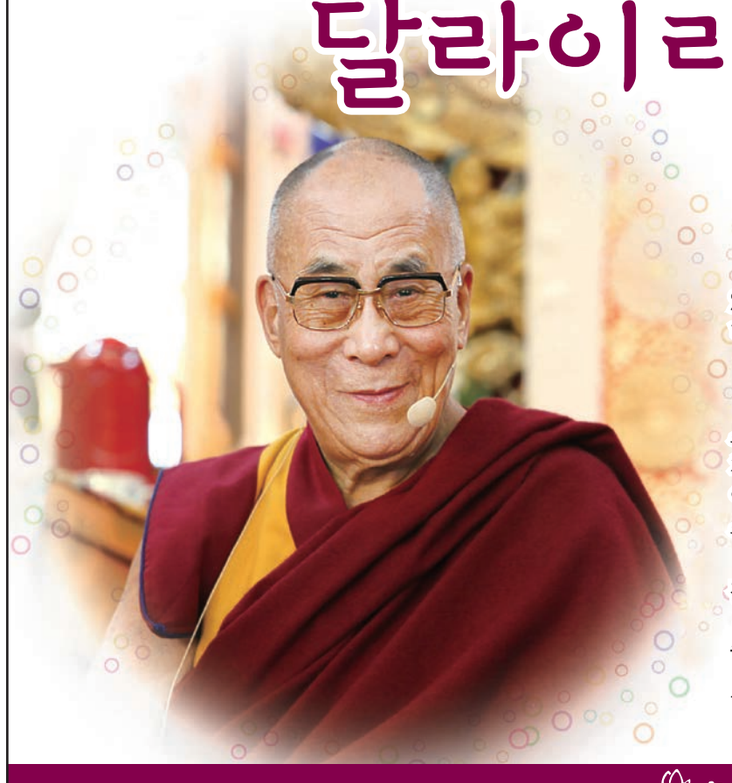
초파일 연등을 거두며

형형색색 꽃잎처럼 나풀거리던 연등을 거두어 들였다. 만다라를 완성한 후 공(空)으로 흩어 버리듯. 다시 일상이 고요하다. 이번 초파일은 공양간(후원)을 책임진 신도님들이 신심 나게 소임을 살아준 덕분인지 '예년보다 비빔밥이 맛있다'며 칭찬이 자자했다. 식재료를 장만하려면 전부 다듬고 썰어야 하는 작업이 고단할 법도 한데 올해는 칼이 잘 들어 한결 재미가 났단다. 그러고 보니 초파일을 앞두고 한 거사님이 무뎌진 과일칼이며, 부엌칼을 쓰기 좋도록 모두 갈아주고 간 일이 생각났다. 거사님은 복지관에도 주기적으로 오셔서 칼을 갈아준다. 어릴 적 아버지가 숫돌에 칼 가는 것을 어깨너머 보고 배운 솜씨라며 쑥스러워했다. 그의 부인도 이·미용 봉사를 하고자 자격증을 따서 면단위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의 머리를 매만져 준다. 한평생 먹고 사느라 자원봉사가 뭔지도 몰랐는데 아내의 권유로 지금은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라고 자랑삼아 말했다. 젊은 시절 장사하면서 손님들이 팔아주고 도와준 덕에 잘 살았으니, 이제 그 은혜를 회향할 뿐이라고.

20년 전만 해도 초파일 무렵이면 아랫마을 노보살님들이 절에 올라왔다. 평상 가득 미나리며 콩나물을 널어 놓고 손질하느라 바빴고 도랑에 풀 뽑고, 법당 뜨락을 물로 소제(掃除)하면서 부처님오신날이 무르익었다. 이제는 사무치게 그리운 옛날 풍경이 돼버렸다. 천수천안이 되어주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니 그 손길 하나하나가 아쉽고 보고프다. 소소한 일이지만 일부러 마음을 내어 손을 덜어주는 거사님이 더욱 고맙다.

"만약 내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여성을 자비행에 바친 영화배우 오드리 햅번의 말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비의 덕을 쌓는 환희로운 부처님오신날처럼 이제는 주위를 돌아보면서 기꺼이 손 내밀고 함께 걷는 공덕이 연등처럼 온 누리에 넘실거리길,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보내며 서원한다.
거창 죽림정사

달라이라마 특별법회
인도·부탄성지순례



자비심의 가르침을 생생히 보여주는 달라이라마라 존자님의 법문이 2016년 8월 29일 ~ 9월 1일까지 4일간 인도 북부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매번 법회를 시작할 때,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법음을 열어갑니다. 천여분의 티베트스님과 수많은 대중이 동참하는 법회를 통해 설하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가르침은 불자로서 신행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동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끔 도와줄 것입니다. 소중한 가르침이 펼쳐지는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장소 :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 주최 :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 www.dalailama.or.kr
주관 : 티벳대장경역경원 Translation Institute for Tibetan Buddhist Canon 대한불교조계종 여수 석천사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연수교육 연수 30점 부여

■ 법회기간_ 2016년 8월 29일 ~ 9월 1일까지(4일간)
■ 신청마감_ 6월 30일까지(항공좌석 관계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A팀 달라이라마 법문과 인도성지순례 15일
8월21일~9월4일 인도 불교7대 성지순례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럭나우-다람살라(달라이라마 법문)-델리-아그라-델리-인천

B팀 달라이라마 법문과 부탄성지순례 15일
8월21일~9월4일 히말라야 불교왕국 부탄순례
인천-델리-박도그라-부탄(푼솔링)-팀푸(부탄의 수도)-푸나카(왕궁사원)-파로(탁상사원)-델리-다람살라(달라이라마 법문)-자이푸르-델리-인천

C팀 달라이라마 법문과 라다크 성지순례 13일
8월23일~9월4일 티베트 불교가 살아있는 인도북부 라다크지역 순례
인천-델리-라다크(레)-라마유루-알치-헤미스-틱세-쉐이-레-델리-다람살라(달라이라마 법문)-자이푸르-델리-인천

D팀 달라이라마 법문 9일
8월27일~9월4일 달라이라마 법문
인천-델리-다람살라(달라이라마 법문)-자이푸르-델리-인천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층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문의 02)720-9600 ※전화를 주시면 상세한 일정 및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